

인사말씀

종무원 여러분!

긴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햇살이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계절입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몸과 마음을 차분히 돌아보며 일년의 삶을 더욱 풍요하게 해주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3월 28일 종정예하의 증명으로 시작한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이 어느덧 절반인 500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덕분이라 여겨집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가 저마다 무엇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자성과 쇄신 결사’는 한국불교가 대승불교 다왔는가, 한국불교 다왔는가, 나아가 우리 종무원이 대승불교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성과 쇄신 결사’는 한국 불교가, 우리 종단이, 우리 종도들이 불교의 본래 목적인 ‘못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정한 대승불교인으로 나아가자는 새로운 노력이며, 지금까지의 불교에서 거둬나 부처의 본래 행(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그 실천 방법으로 2011년 6월 자성과쇄신결사본부를 출범하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5대 결사’ 운동을 한차원 높게 승화시켜, 내적으로 ‘대중공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서로 탁마정진 했으며, 외적으로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을 통해 우리가 대승불교인으로 태어나고 행동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이런 결사 운동과 더불어 종단은 종단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분야, 종단종무행정 분야, 승가복지 분야, 승가청규 분야 등 다양한 제도부문의 쇄신안을 성안하여 종단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 스님들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승가청규와 관련해서는 현 승가청규의 불합리한 요소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승가의 사회적 위익과 도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청규위원회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청규의 결계 포살본’을 만들어 생활 속의 규범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우리가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고 실현하는 것이 불교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생명평화 1000일 정진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승 불교인으로 태어날 것이며 ‘야단법석’을 통해 성장하고 ‘무차대회’를 통해 실천할 것입니다.

정진단에 홀로 앉아 기도를 하다보면 스스로의 감화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본인을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정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이고 기회입니다.

정진을 통해 불자로서 한국불교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차분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고, 비우고, 나누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며 살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즉각 실현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주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전심전력으로 바로 설 때, 불교는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등불을 밝혀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불교는 “행위 하는 대로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진단에서 하는 기도는 모든 생명의 평화를 안락과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동안 ‘나’를 중심으로 한 협소한 기도에서 벗어나 크다면 큰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보살의 정신일 것이고 부처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살의 행위를 부처의 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자성과 쇄신 결사’인 것입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종단 주변과 외부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 지극하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참여는 이 같은 결사의 한 축에 여러분의 발원을 더하는 것입니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정진주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난 500일을 넘어 앞으로의 500일간의 정진은 여기 모인 종무원과 불자 여러분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이 모여 결사의 대중화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를 희망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자 주역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널리 알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생명평화 1000일 정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